



팀 우승 구경만 한 양민혁

코네티컷 2부리그 우승·승격
양은 13경기째 출전명단 빠져



임대생 양민혁의 소속팀인 코네티컷 리 시티가 25년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복귀를 확정할 데 이어 59년 만에 챔피언십(2부) 우승까지 차지했다. 코네티컷은 22일 오전(한국 시간) 영국 코네티컷의 코네티컷 빌딩 소사 이어티 아레나에서 포츠머스와의 치른 2025-2026 잉글랜드 챔피언십 44라운드 홈 경기에서 5-1로 이겼다.

프랭크 램퍼드 감독이 이끄는 코네티컷은 전반 12분 코너킥에 이은 하지 라이트의 헤딩골로 앞서가다 후반 들어 에프런 메이슨클라크(2골), 케인 헤이든이 골 찬치에 가세하고 상대 수비수 리건 폴의 자책골까지 쫓아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코네티컷(승점 89·26승 11무 7패)은 2위 밀월(승점 79·23승 10무 11패)에 승점 10이 앞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다.

코네티컷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은 1966-1967시즌 이후 59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다.

코네티컷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43라운드 블랙번 로버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겨 최소 2위를 확보하면서 2000-2001시즌 EPL 19위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뒤 25년 만에 EPL 복귀를 확정할 바 있다.

다만, EPL 승격에 이어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코네티컷의 역사적인 순간에도 양민혁은 함께하지 못했다.

양민혁은 이날도 출전 선수 명단에 들지 못했다.

양민혁에게는 챔피언십에서 13경기 연속 출전 명단 제외다.

양민혁은 2025-2026시즌을 앞두고 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포츠머스로 임대돼 반시즌 동안 15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리며 활약했으나 올해 1월 코네티컷으로 재임대된 뒤로는 출전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다가 램퍼드 감독의 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스완지시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 원정경기에 교체 투입된 엄지성이 연어넌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뽑고 2-1로 이겼다.

엄지성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22분 그라운드를 밟은 뒤 후반 35분 잔비포트니크가 차넣은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상대 수비수 타일론 스미스가 엄지성을 넘어뜨려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비포트니크가 키커로 나서서 마무리했다. 스완지가 종료 직전 만회 골을 내줘 페널티킥 골이 이날 경기의 결승 득점이 됐다. 승점 60을 채운 스완지는 10위로 올라섰다.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는 밀월과의 홈 경기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끝내 출전하지 못했다. 스토크는 1-3으로 저 승점 55로 17위에 자리했다.

전진우가 경기 내내 벤치에만 머문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도 리그와의 홈 경기에서 0-1로 저 다음 시즌 리그 2등권(22-24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승점 44로 22위인 옥스퍼드는 두 경기씩 남겨놓고 21위인 블랙번 로버스(승점 49)에 승점 5가 뒤져 강등 위기에 내몰렸다.



양민혁의 소속팀인 코네티컷 시티가 25년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복귀를 확정할 데 이어 59년 만에 챔피언십(2부) 우승까지 차지했다. 연합뉴스

마운드 짱짱... 1~4위팀 이유있는 질주



프로야구 시즌 초반 선두권을 형성한 4개 팀의 토대는 탄탄한 마운드다. 선두 kt wiz가 선발과 불펜의 조화를 자랑한다면 2위 LG 트윈스, 3위 삼성 라이온즈, 4위 SSG 랜더스의 강점은 강력한 불펜이다.

kt는 21일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5-5로 맞선 9회 마무리 박영현을 투입해 KIA의 예봉을 꺾은 뒤 연장 11회 김민혁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누웠다.

KIA도 임시 마무리 성영탁을 마운드에 올려 맞불을 냈지만, kt의 견고한 방패를 뚫지 못하고 5-6, 1점 차로 졌다.

kt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3.45로 전체 3위, 불펜 평균자책점은 4.85로 4위다.

먼저 마법사 군단 선발진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승리(10승)를 합작했다. 새 얼굴 케일럽 보슬리가 4승을 담당했고, 오원석과 소형준이 2승씩을 거들었다.

소방수 박영현은 1승 7세이브, 평균자책점 1.46을 올리며 뒷문을 확실히 잠갔다. 1

kt, 선발·불펜 조화 찰떡궁합

선발진 10개구단 중 최다 10승

이적 한승혁 1승 5홀드 활약

LG-삼성-SSG 막강 불펜 자랑

핵심 투수진 부진 공백 잘 메워

승 5홀드를 수확한 이적생 한승혁은 kt 불펜의 새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다.

LG, 삼성, SSG는 kt보다 떨어지는 선발진의 힘을 구원 투수진으로 상쇄하며 선두권 싸움에 불을 지른다.

LG는 오니 치리노스와 임찬규가 4번씩 등판해 둘이 합쳐 1승밖에 올리지 못해 재미를 못 봤다.

삼성도 핵심 투수가 둘이나 빠진 바람에 힘들었다. 원태인은 팔꿈치 통증을 앓다가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고, 역시 팔꿈치 인대가 과열된 뱀 매닝을 대신해 단기 대체 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잭 오러클린은 4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5.63에 그쳐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앤서니 베니지아노, 미치 화이트 두 외국인 투수에 아시아 쿼터 다케다 쇼타(등록명 타케다)를 합쳐 선발 투수 3명이 고작 1승을 거둔 SSG의 선발진 사정도 안 좋다.

그런데도 유영찬(LG), 김재윤(삼성), 조병현(SSG)이라는 확실한 마무리 투수를 보유한 덕분에 세 팀은 매서운 뒷심으로

승리를 놓치지 않는다.

유영찬은 21일 한화 이글스를 제물로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수확해 역대 최소 경기(11경기) 10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다.

장현식(3승 5홀드), 우강훈(5홀드), 김진성(3승 2홀드), 유영찬으로 이어지는 LG 필승조는 불안감이 판치는 여느 팀의 경기 후반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을 준다.

삼성은 클로저 김재윤이 4세이브, 평균자책점 1.17로 중심을 잡은 가운데 신에우안 장찬희(2승·평균자책점 2.63), 우완 이승현(3승 1홀드·평균자책점 2.08)과 좌완 트리오 백정현(1승 2홀드·평균자책점 2.08), 배찬승(1승 2홀드·평균자책점 2.45), 이승민(1승 2홀드·평균자책점 0.87)의 앙상블이 훌륭하다.

조병현(1승 3세이브·평균자책점 0)을 축으로 베테랑 듀오 노경은(1승 1패 1홀드), 김민(3승 4홀드·평균자책점 0.79), 이로운(2승 1홀드·평균자책점 0)이 이끄는 SSG 불펜도 상대 타선의 맥을 끊고 승리로 연결하는 능력이 노련하다. 글·사진·연합뉴스

“평가 재건”... 팔 걷어부친 흥국생명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25-2026시즌 준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GS 칼텍스에 일격을 당해 탈락했던 흥국생명이 ‘평가 부활’을 외치며 선 굵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흥국생명은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국

배구연맹(KOVO) 총재의 뒤를 이어 차기 총재직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새 구단주로 나서며 본격적인 변화를 알렸다.

신임 총재 단독 후보가 된 이호진 신임 구단주는 28일 KOVO 이사회에서 선임될 전망이다. 7월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연맹을 이끌게 된다.

흥국생명은 또한 21일 V리그 새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회장으로 있는 3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타이틀 스폰서로 투자한다.

회장과 타이틀 스폰서가 된 흥국생명은 2026-2027시즌 우승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최근 과감한 전력 보강으로 단숨에 우승

정호영·표소주 거침없는 영입
회장사·타이틀 스폰서도 맡아

후보가 됐다 평가 받는다.

흥국생명은 17일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인 미들블로커 정호영과 총보수 5억 4000만 원에 계약했다. 1년 전 정관장에서 은퇴를 선언했던 공격수 표소주도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내부 단속도 놓치지 않고 FA 김수지, 도수빈, 박민지 모두 불잡았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